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추진

군, 마스터 플랜 이달말까지 마무리 계획 마이산을 세계적 생태 관광지로 조성

진안군은 전라북도 토탈 관광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 남쪽에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MP)을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는 국가지질공원이 될 마이산과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질과 생태, 역사문화를 동시에 탐방·체험·교육이 가능한 지질공원형 생태관광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이산은 중생대 백악기에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생성된 후 침식과 풍화를 겪으면서 지금과 같은 신비감을

주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어류 및 패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형상은 수많은 설화를 잉태시켰고 정치와 종교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금척으로 대표되는 이성계의 조선건국 설화와 어좌 뒤에 반드시 배치되는 일월오봉도를 탄생시켰고, 돌담군은 불교와 소도, 풍수 등 종교적 연관성을 깊게 가지게 되었다. 또한 호남의병장의동맹지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역은 금남호남정맥 등 3대 정맥의 중심지이고,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이므로써 생태적으로도 중

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한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73억원을 투자하여 핵심시설로 생태관광체험센터(방문자센터)와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고, 은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및 정비하면서 그 주변에 생태탐방로와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은천마을 등 3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소득 기반을 다지고, 그 바탕위에 축제와 지질·생태·역사문화 탐방·체험·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주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농·특산물 판매,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미생물로 축사냄새 줄인다

무주군, 유산균·질소 제거균 배양 농가 공급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사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유산균과 질소 제거균을 고농도로 배양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용미생물의 효능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해 신청(신청대장에 등록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문의 -

기술연구과 연구개발063-320-2878, 2895)

유산균은 가축의 장내 부패균 생육을 억제시켜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고 내병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질소 제거균은 암모니아성 악취를 감소시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폐수 정화 효과도 있어 축사냄새 개선에 유용한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장원 연구개발담당은 "무주군 농업기술센

터에서는 농업인이 원하는 고농도 고품질 축사냄새 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보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생물은 모두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무주농업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에 조성된 무주군 미생물배양센터는 220m2 규모로 연간 200여 톤의 EM활성액,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및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실천농가, 축산농가 등에 보급해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완주군-칠곡군, 농축산물 공동 직거래장터 운영

서울 청계광장에서 두 번째 '아름다운 동행' 펼쳐

완주군과 칠곡군의 두 번째 아름다운 동행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26일 열렸다.

군에 따르면, 영호남의 우호협력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 추진 일환으로 열리는 완주·칠곡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아름다운 동행 두 번째 마당'이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청계천 광장 일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완주군에서는 삼례농협 수박을 비롯하여 화산농협 한우, 당조고추, 파프리카와 가공식품 협동조합 등 7개 업체가 참여하여 완주군민의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고, 우수한 로컬푸

드 정책을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눈길, 입맛을 사로잡았다.

칠곡군에서는 대표상품인 참외와 오이, 벌꿀과 농가의 가공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두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민요와 오카리나, 크로마하프 등의 문화공연도 펼쳐져 많은 박수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백선기 칠곡군수를 비롯한 양 지역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당선자, 완주군 의회 의장 및 재경 향우회원 등이 참석하여 두 지역의 화합을 다지고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 홍보와 판매가 이뤄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100°C 완주, 명사특강 성황
완주군은 26일 군청 문예회관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격 강좌인 '100°C 완주, 명사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100°C 완주, 명사특강'의 개강 첫날은 국민강사로 불리는 김미경 이클래스 대표가 '나시 힘을 내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연은 사전예약으로 좌석이 조기 매진된 것에 이어, 당일 강연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 좌석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김미경 강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강의에 강연장은 끝날 때까지 열기로 뜨거웠다.
'100°C 완주, 명사특강'은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강사를 월 1회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2시에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5월 김미경 이클래스 대표에 이어 6월 30일에는 스타변호사로 불리는 이인철 변호사의 법, 아는만큼 보인다 강의가 열린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은 26일 고대산성 발굴조사 대박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거행했다.

고대 산성 발굴조사 대박 기원

장수군, 가야 문화유산 2차 발굴 개토제 거행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장수군의 고대산성(침령산성·합미산성)의 2차 발굴조사에 앞서 지난 25일 발굴조사 대박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거행했다.

이날 개토제에는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양성빈 전라북도의원,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김재홍 계남면장, 박장근 군산대학교 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좋은 성과가 드러나길 열원했다.

이번 발굴조사 학술용역은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진행되며 2014년 1차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침령산성의 집수시설, 합미산성의 건물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합미산성과 침령산성은 도지정 문화재로 1차 조사에서 가야계 유물, 후백제계 유물 등이 출토됐으며 성벽의 축조방법이나 보존 상태에 양호하다고 판명돼 학계의 관심이 고조된바 있다.

장수군은 이번 발굴조사 성과에 따라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사적(국가지정문화재) 등재를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최용득 장수군수는 "이번 학술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여러분의 땀방울이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보답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야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업인과의 만남 'job,談(잡담)'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서정분)는 26일 무주군 일대에서 관내 청소년 10명이 참여하여 직업체험프로그램인 직업인과의 만남 'job,談(잡담)'을 진행했다.

직업인과의 만남 'job,談(잡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직업인을 만나 직업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빠르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고, 체험하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제 1부 바리스타를 시작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관한 설명과 함께 커피에 대해 배우고, 로스팅하는 법과 드립

(drip)커피, 라떼아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 2부 제빵사는 제빵기능사 자격 취득방법을 듣고 빵 반죽하기, 오븐에 굽기, 데코레이션하는 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직업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무주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자아성장과 직업의식을 함양하길 기대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기자

특별블로그

무주군, 폭염대비 안전

무주군이 '2016년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한 무주군은 안전재난과장을 총괄 팀장으로 총괄상황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기능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전대비 단계에서는 폭염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파악해 재난도우미를 지정·관리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 확고하고 아울러,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와 건강 체크,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며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이밖에도 무더위 쉼터 33개소를 지정해 냉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기자

장수지역자활센터·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주재훈)와 장수시니어클럽(관장 우연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장수군은 장수지역자활센터가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자활사업단운영, 참여자관리, 센터운영 등이 전국 238개 기관 중 상위 10~30% 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장수시니어클럽은 2015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부분에서 전국 68개 사업단 중 상위 1그룹 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지정 및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장수지역자활센터는 영농사업단 등 6개의 자활사업단과 3개 자활기업에 50여명 주민이 참여해 저소득세대의 성공적인 빈곤탈출과 자립에 힘쓰고 있으며 장수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2개 유형 7개 사업단 151명 참여해 건강한 노후와 사회공헌을 유도해나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읍, 농촌일손 돕기 나서

진안읍 진안읍(읍장 김중구)은 지난 25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직원 30여명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불곡 오모씨(80·여)의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 대상 농가는 중풍을 앓고 있어 몸이 불편한 할머니로 고추밭 1,000여평의 지주목과 줄치기 작업 등 일손 돕기에 나서게 된 것.

오모씨는 "고추밭 작업을 못해 마음이 급했는데 구슬땀을 흘리며 도와준 공무원들을 보면서 한없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중구 읍장은 "바쁜 업무에도 참여해준 직원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00°C 완주, 명사특강' 성황

완주군은 26일 군청 문예회관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격 강좌인 '100°C 완주, 명사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100°C 완주, 명사특강'의 개강 첫날은 국민강사로 불리는 김미경 이클래스 대표가 '나시 힘을 내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연은 사전예약으로 좌석이 조기 매진된 것에 이어, 당일 강연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 좌석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김미경 강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강의에 강연장은 끝날 때까지 열기로 뜨거웠다.

'100°C 완주, 명사특강'은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강사를 월 1회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2시에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5월 김미경 이클래스 대표에 이어 6월 30일에는 스타변호사로 불리는 이인철 변호사의 법, 아는만큼 보인다 강의가 열린다. /완주=이종복 기자